

산업통상부는 ‘중복상장 금지’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바 없습니다.

< 보도 내용 >

- 2026.7.21. 조선비즈는 「[단독] 금융위 ‘중복상장 금지’ 추진에 산업통상부 “기업 자금조달 걸림돌” 의견 전달」 기사에서,
 - “금융위원회가 ‘중복 상장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산업통상부가 “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”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.”라고 보도했습니다.

< 정부 입장 >

- 산업통상부는 금융위원회의 중복상장 금지 가이드라인(안)*에 대해, 경제단체 우려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.

* 7.7일 중복상장 금지 가이드라인(안) 발표 후 의견수렴 중

- 산업통상부는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, 중복상장 금지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적은 없으므로, 추후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태현 (044-203-421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수 (044-203-4212)